

발행일 : 1999년 11월 18일(목)

장애인 일권리 찾기 '천막 단식 농성' 소식 1

발행인 :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 대표 박호경, 담당 : 안경화홍보부장(전화 3474-1560, 018-321-3301)

17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서 '천막 단식 농성' 시작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이하 일권연, 대표 박호경)은 17일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한 천막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앞서 일권연은 국회 앞 구장기신용은행(현 국민은행) 앞에서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한 천막단식농성 발대식'을 가졌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벌어진 발대식에서 박호경 일권연 대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실업 장애인들은 오갈데가 없어 추운 거리를 방황해야 하는데 국회는 정쟁만을 일삼고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은 뒤로 미루어 있다"며 "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다. 일을 하고 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진정한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싶다"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천막단식농성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일을 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현 정기국회에서 장애인직업재활법이 통과"돼야 하며 "장애인직업재활법이 통과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발대식에 이어 국회 앞쪽으로 서리행진을 하려했으나, 경찰이 막아 행진을 하지 못했으며, 그 와중에 천막을 경찰에 빼앗기고, 경찰의 공권력으로 일권연의 히아무개(31세, 남, 실업 장애인)씨는 다리가 부러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한편 일권연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농성장소로 정하고 천막을 칠 예정이었으나, 여의지 않아 5시간여 실랭이를 벌인 끝에 겨우 한강이 보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천막을 치고, 17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 밤을 지냈다. 일권연은 오전에는 국회의원 직섭 면담과 오후에는 거리 선전전을 통해 국민들에게 '장애인직업재활법 제정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알리기로 했다.

일권연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추위도 고사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함에 뜻있는 분들의 참여와 지원을 요청했다. 우리 일권연은 다음과 같은 요구가 이뤄질 때까지 천막 단식 농성을 계속한다.

-----다 *-----

하나.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노동부는 장애인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정쟁을 중지하고 장애인들의 고통(민생현안)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약속을 지켜라!!!

내보내: 발신자:

시간: 1999/11/19 10:31:04

쪽: 1/1

발행일 : 1999년 11월 19일(금)

장애인 일권리 찾기 '천막 단식 농성' 소식 2호

발행인 : 정예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 대표 박호경, 담당 : 안성희홍보부생(전화 3474 1560, 018-321-3301)

**일권연 장애우, '천막 단식 농성' 3일째
장애우 2명 합류, 현재 9명**

지난 17일부터 여의도 순무운동회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일할 권리 확보를 위한 천막 단식 농성'은 만 3일째 접어들었다. 농성자들은 약간 번진된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언제 어느 때 천막 철거를 당할 지 불라 잔뜩 긴장 상태에 있다. 여의도순무운동회와 경찰들이 계속 오락가락하며 2시에 철거하겠다, 5시에 철거하겠다며 계속 위협을 가해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식 농성에 2명의 장애우가 합류함으로써 오히려 힘을 더욱 얻고 있는 상황이다.

박호경위원장은 "우리의 이런 노력은 곧내 우리의 일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며 "장애인직업재활비 제정이 반년 이상 지연된 것"이라고 우익이 농성을 단행한 때까지 함께 해가려는 의도도 없지 않았다. 박위원장은 농성자들과 함께 오늘부터는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 면담을 하며 장애인직업재활비 통과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추위에 매우 약한 장애인들은 강바람의 추위로 매우 나쁜 몸 상태여서 담요나 겨울 장바 등이 절실한 상태이다.

장애인 일권리 찾기 대규모 집회

일권연, 11월 20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
앞 장기신용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일권연은 오는 11월 20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 구 장기신용은행(현 국민은행)앞에서 '장애인 일권리 찾기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약 300여명 참여 예정인 이번 대규모 집회는 일권연 회원과 그외 장애인문제에 관심이 있고 장애인직업재활비 제정을 지지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여성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지 발언과 함께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나.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 보장하라!!!

하나. "노동부는 장애인에게 사죄하라!!!"

하나. 국회는 정쟁을 중지하고 장애인들의 고통(민생현안)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 김대중 대통령은 직업재활법 제정으로 약속을 지켜라!!!

발행일 : 1999년 11월 24일(수)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천막 단식 농성' 소식 6호

발행인 :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 대표 박호경, 담당 : 안경화홍보부장(전화 3474-1560, 018-321-3301)

8일째입니다

장애인 9명이 천막 단식 농성 중

-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

8일째 천막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화(임권연 홍보부장)과 박성현(임권연 조직부장) 등 장애인 9명이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를 위해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역시 오전 8:00부터 10:00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법을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서 2시간을 버텼습니다. 많이 춥습니다. 더구나 어젯밤에는 그동안 전력을 공급해주던 발전기도 없어서 겨울 밤 추위에 많이 떨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애인 직업재활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계속 천막 단식 농성을 할 것입니다. 얼굴이 검게 그을고 초췌한 모습으로 노동 현장에서 주도 불리우는 '동지가'를 부르며 서로를 마주보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우대학 동문들과 장애인 단체 등에서 지지 방문을 해주어서 더욱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8개 개혁 법안 제·개정 운동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8개 개혁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직업재활법 제정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법을 잘 모르신다면 <http://www.cowalk.or.kr>의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장애인 직업재활법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장애인의 노동권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우리는 민주노총을 비롯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운동하고 있는 8개 개혁법안 제정 운동에 꼭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일이 너무 늦어졌다는 사실도 알지만,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우리의 운동을 지지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동참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발행일 : 1999년 11월 25일(목)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천막 단식 농성' 소식 7호

발행인 :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 대표 박호경, 담당 : 안경화홍보부장(전화 3474-1660, 018-321-3301)

장애인 9명, 9일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단식 농성 중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연합(이하 일권연, 대표 박호경)이 11월 25일 현재, 연속 9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단식농성자들은 매일 아침 8:30-9:30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있으며 점심시간과 오후 3-4시에는 여의도 전역을 돌며 '장애인직업개발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과 대국민 홍보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서명 현황을 살펴보면 약 2,0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오늘은 비가 온 뒤라 날씨는 더욱 추워지고, 어제는 밤 늦도록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어둠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보낸 수밖에 없었다.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이 절실하다.

한림>>>

장애인 일할 권리 찾기 대규모 집회

- ▶ 때: 1999. 11. 27(토) 오후 3시
- ▶ 곳: 여의도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 주최: 장애우일할권리찾기연합

발행일 : 1999년 11월 29일(월)

장애인의 일권리 찾기 '천막 단식 농성' 소식 10호

발행인 : 장애우 일할 권리 찾기 연합 대표 박호성, 담당 : 안경희홍보부장(전화 3474-1560, 018-321-3301)

열 사흘째, 실업 장애인의 천막 단식 농성 중

- 여의도 순복음교회앞에서 -

열 사흘째 천막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만 열 사흘째 돌한 모금 입에 축이내 추위에도 불구하고 천막 농성장을 지키고 있는 장애우들이 있다. 평생 한 번도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장애우들이 목숨을 담보로 천막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목숨을 담보로 일할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장애우 단식 농성장에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장애인의 일권리 찾기 집회 개최

- 여의도 순복음교회앞, 국회 앞에서 -

장애우일권리찾기(이하 일권연, 대표 박호성)는 지난 27일 오후 1시부터 여의도 순복음교회앞에서 '장애인직업제한법 제정으로 장애인의 일권리 보장하라'며 집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장애우일권연 회원들과 단식 농성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집회를 개최했으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장애우 1종면허 제한 조항 철폐를 위한 공청회 자리에 참석하여 장애인 직업제한법 제정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공청회가 끝난 즉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밤 7:00까지 집회를 계속 했다.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진행된 이 집회에서 박성현조직부장(단식농성자, 일권연 회원)는 "이제 더이상 구걸하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아 일을 하고 세금을 내는 당당한 국민이기를 원한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다. 이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했다.

별첨 :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과 장애인직업제한법안 비교 분석